

제14차 워크숍 결과보고서

지속가능한 관광과 제주의 포용적 성장

- ◆ 일 시 : 2017년 8월 23일(수), 14:00~
- ◆ 장 소 : 제주웰컴센터 대회의실
- ◆ 주 관 : 제주관광공사
- ◆ 주제발표 : 김태운(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강미희(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교수)
- ◆ 좌 장 : 문성종 한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 ◆ 토론(가나다순):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김남진 제주관광협회 부분부장
황명규 북학산국립공원관리소 소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제주관광 현안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매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본 워크숍을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이 도출되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관광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관광공사
JEJU TOURISM ORGANIZATION

주제 **1**

지속가능한 제주와 제주국립공원 구상

김태운 선임연구위원
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지속가능한 제주와 제주국립공원 구상

2017년 8월 23일



CONTENTS

- 1. 제주의 현실과 자연환경 관리**
 - 1-1. 제주의 외형적 성장과 한계 노출
 - 1-2. 자연환경자산의 종합적 관리체계 미흡
- 2. 국립공원의 이해와 주요 내용**
 -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 4.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 일정**

1. 제주의 현실과 자연환경 관리

1-1 제주의 외형적 성장과 한계 노출

1-2 자연환경자산의 종합적 관리체계 미흡

① 인구 및 관광객 증가

외형적 성장

- **인구수: 2016년 661,190명**
 - 제주 5년 평균 성장률: 2.5%
 - 전국 5년 평균 성장률: 0.4%
- **제주도 노령화 지수: 89.7**
 - 전국 노령화 지수: 100.6
- **관광객수: 2016년 15,853천명**
 - 내국인: 12,250천명
 - 외국인: 3,603천명
 - ✓ 중국인: 3061천명(외국인의 85%)
- **GRDP: 2015년 15조 4,320억원**
 - 전국 GDP(15,636,680억원)의 1%
- **1인당 GRDP 24,243천원**
 - 전국 평균 30,892천원의 85%

성장의 한계

- 택지개발 등 난개발 초래
- 폐기물 발생량 급증에 따라 처리난 발생
- 하수처리 용량 초과 등의 문제 발생
- 차량 증가에 따른 정체 및 주차문제 발생

2

1. 제주의 현실과 자연환경 관리

1-1 제주의 외형적 성장과 한계 노출

1-2 자연환경자산의 종합적 관리체계 미흡

② 자연환경의 양적·질적 가치 저하

자연환경의 현재 가치

- **4대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한 전세계 유일한 지역**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2002)
 - 제주세계자연유산(2007)
 - 제주도세계지질공원(2010)
 - 람사르습지
 - ✓ 물영아리(2006), 물장오리(2008), 1100고지(2009), 동백동산(2011), 숨은물벙디(2015)
-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중심**
- **자연환경자산의 가치 저하**
 - 중산간, 오름, 곶자왈, 하천, 습지, 연안역(해역포함), 용천수, 동굴 등

자연환경의 미래 가치

-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가 저하될 때 제주의 경쟁력도 저하**
- **보물섬의 가치: 마을발전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원체계 미흡**
- **한라산국립공원: 기후변화, 정상부 훼손 등의 문제에 직면**
 - 저가 단체관광객 일시 체류지
- **오름, 곶자왈 등 자연환경의 질적 저하**
 - 주요 환경자산의 파편화
 - 습지, 용천수 등의 훼손
- **연안해역의 가치 발굴 및 친환경적 이용체계 미흡**

3

1. 제주의 현실과 자연환경 관리

1-1. 제주의 외형적 성장과 한계 노출

1-2. 자연환경자산의 종합적 관리체계 미흡

자연환경	환경자산의 관리 유형	관리 실태
<div> <p>중산간지대</p> <p>꽃자왈</p> <p>오름</p> <p>습지</p> <p>용천수</p> <p>동굴</p> <p>연안해역 등</p> </div>	<p>자연생태계 관리</p> <p>자연경관 관리</p> <p>문화 경관 관리</p> <p>지형·지질 관리</p> <p>이용편의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생태계 및 생물종 다양성 등 종합적 관리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적 관리로 인한 고립화, 파편화 초래 ▪ 단일 유형 중심의 관리: 환경자산의 가치 저하 ● 현명한 이용 및 일자리 창출 등 가치 활용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낮은 기여도 ▪ 양질의 전문 일자리 창출에 한계 ● 다양한 법률에 따른 개별관리로 미래지향적 관리 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서비스에 대한 보상 체계 미흡 ▪ 개별 토지소유자에 대한 희생의 한계 ● 자연환경자산의 가치 발굴 및 과학적 관리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자연환경종합조사 미 실시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① 국립공원 관리의 변화

1967~1980년대 유원지 중심 국립공원	1990~2000년대 중반 이전 자원보호 중심 국립공원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 공존형 국립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풍광지 보호와 국민의 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개발과 보존, 이용과 보호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과 보존의 균형 미흡 ▪ 위락지·유원지화 경계 ▪ 자연환경+자연생태계 보존 ▪ 자연보호중심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 등 보전 ▪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로신설, 대규모 휴양·위락·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완화 조치 ▪ 지역발전, 주민소득증대 지원 : 관리기준 완화 ▪ 시설임지 원칙적 배제 ▪ 토지소유자 권리행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내 주민 : 지원, 혜택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당사자간 갈등해결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지 매입 ✓ 주민지원사업 ✓ 주민의 관리 참여 모델 개발 ▪ 대국민 생태복지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단위 취약계층 수요 충족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① 국립공원 관리의 변화

1967~1980년대 유원지 중심 국립공원	1990~2000년대 중반 이전 자원보호 중심 국립공원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 공존형 국립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개 국립공원 ✓ 13개 국립공원 지정 ✓ 7개 도립공원 승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국립공원(무등산, 태백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부서 : 건설부(~1991) 관리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위임(1967) ✓ 국립공원관리공단 위탁(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부서 : 내무부(1991) 주관부서 : 환경부(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부서 : 환경부 관리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한라산) ✓ 국립공원관리공단(경주, 2008)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② 국립공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제1차 자연보전 기본계획 (2003~2012)	제2차 자연보전 기본계획 (2013~2022)
관리목적	생태계 보전	생태계 보전 + 사회·경제적 가치
보전개념	소극적 보호 규제	적극적 복원·복구 개념 확대
공간구조	독립된 생태공간 관리	보호지역 생태네트워크 활성화
정책고객	탐방객	탐방객 + 지역주민
거버넌스	중앙정부 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기반
관리기법	단기적 시각, 전문가 의존	장기적 관점, 지역적 지식
재원확보	정부예산 의존	다양한 재원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① 공원자연보전지구: 보존 기능

자연공원 허용행위

- 학술연구, 자연보호 등 최소 행위
-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 및 공원사업
- 공원지정 이전 종교단체 시설물의 개축·재축, 복원
-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최소 사업

현행 법정 보호지역

◆ 절대보전지역

- 절대보전지역: 건축물 설치, 형질변경 금지

◆ 관리보전지구 1, 2등급

- 지하수보전지구: 오염원배출시설 설치 금지,
방류수수질기준 부합시 제한적 허용(2등급)
- 생태계보전지구: 형질변경 금지, 1차산업 관련
소규모 형질변경 허용(2등급)
- 경관보전지구: 시설물 설치 금지, 1층 이하만 허용(2등급)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② 공원자연환경지구: 완충 기능

자연공원 허용행위

- 공원자연보전지구 허용행위
-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 건폐율 20%, 높이 9m 이하
- 농지, 초지 조성 및 부대시설
- 농축산업 등 1차산업 행위(농산물보관창고, 양식어업시설, 축사 등)
- 임도, 조림·육림·벌채, 생태계 복원
- 공원지정 이전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 천재지변시 이축
- 사방·호안·방화·방책·보호시설설치
- 군사훈련, 국방상 최소한의 행위·시설

현행 법정 보호지역

◆ 상대보전지역

- 상대보전지역: 1차산업 관련 건축허용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건폐율 20% 이하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③ 공원마을지구: 취락 기능

자연공원 허용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 허용행위
- 주거용 건축물, 생활환경기반시설
 -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연면적 200㎡, 건폐율 60%, 2층 이하
 - ✓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 건폐율 40%, 3층 이하 개축·재축에 한함
- 마을지구 자체 필요 시설
 - ✓ 연면적 330㎡, 건폐율 40%, 3층 이하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 액화가스판매소, 농어촌민박사업용시설
 - 태양에너지 및 풍력시설
- 마을지구 자체 기능상 필요한 행위
- 환경오염 없는 가내공업(건폐율 60%, 높이 9m)

현행 법정 보호지역

-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건폐율 40~60% 이하
 - 계획관리지역: 40%
 - 취락지역: 60%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④ 공원문화유산지구: 사찰·문화재 보전 기능

자연공원 허용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 허용행위
- 불교 시설 및 부대시설
- 사찰의 보전·관리행위

현행 법정 보호지역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① 공원계획

◆ 국립공원 계획 수립 절차

- 공원계획 요구서
 - ✓ 대상
 -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주요 내용
 - 종류, 목적 및 사유, 내용과 규모, 사업비 규모, 사업시행기간, 효과,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주요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12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① 공원계획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 기준
 - ✓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 고려
- 주기
 - ✓ 10년 단위(5년 단위 변경 가능)
- 타당성 검토
 - ✓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공원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반영

- 환경현황조사, 자연생태계 변화 분석, 대기 및 수질 변화 분석, 폐기물 배출 분석,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 방안
-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13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②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 **공원계획과 연계, 10년 단위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수립(5년단위 변경)**

◆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사회와의 협력, 자원확보 계획 등**

➢ 자연생태, 지형·지질, 수리·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

목표	주요 내용
공원자원 조사 자연환경 보전	▪ 동식물, 경관, 문화재 등
자연환경 관리	▪ 토지매수, 훼손지 복원, 오염 예방
지속가능한 이용	▪ 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 금지,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 탐방예약제, 공원 시설의 유지관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 주민지원사업 등
자원 확보	▪ 소요예산 및 자원확보 등
기타	▪ 공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③ 공원시설(공원계획,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을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15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③ 공원시설(공원계획, 공원별 보전, 관리계획)

◆ 공원시설의 종류(시행령 제2조)

시설의 종류	주요 내용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관리사무소 · 탐방안내소 · 매표소 · 우체국 · 경찰관(파출소) · 마을회관 · 경로당 · 도서관 · 공설수목장림 · 환경기초시설 등 ◆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보호 및 안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자원 보호 및 탐방자의 안전 도모 사방 · 호안 · 방화 · 방책 · 방제 · 조경시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골프장 ·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 제외) 유선장 ·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 광장 · 야영장 · 청소년수련시설 · 어린이놀이터 · 유어장 · 전망대 · 야생동물관찰대 · 해중관찰대 · 휴게소 · 대피소 · 공중화장실 등

16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관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③ 공원시설(공원계획, 공원별 보전, 관리계획)

◆ 공원시설의 종류(시행령 제2조)

시설의 종류	주요 내용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원 · 동물원 · 수족관 · 박물관 · 전시장 · 공연장 · 자연학습장 등
교통 · 운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탐방로 포함) · 주차장 · 교량 · 궤도 · 무궤도열차 ·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m 이하의 공항) · 수상경비행장 등
상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품판매점 · 약국 ·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제외) · 미용업소 · 목욕장 · 유기장 등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 · 여관 등
기타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시설의 부대시설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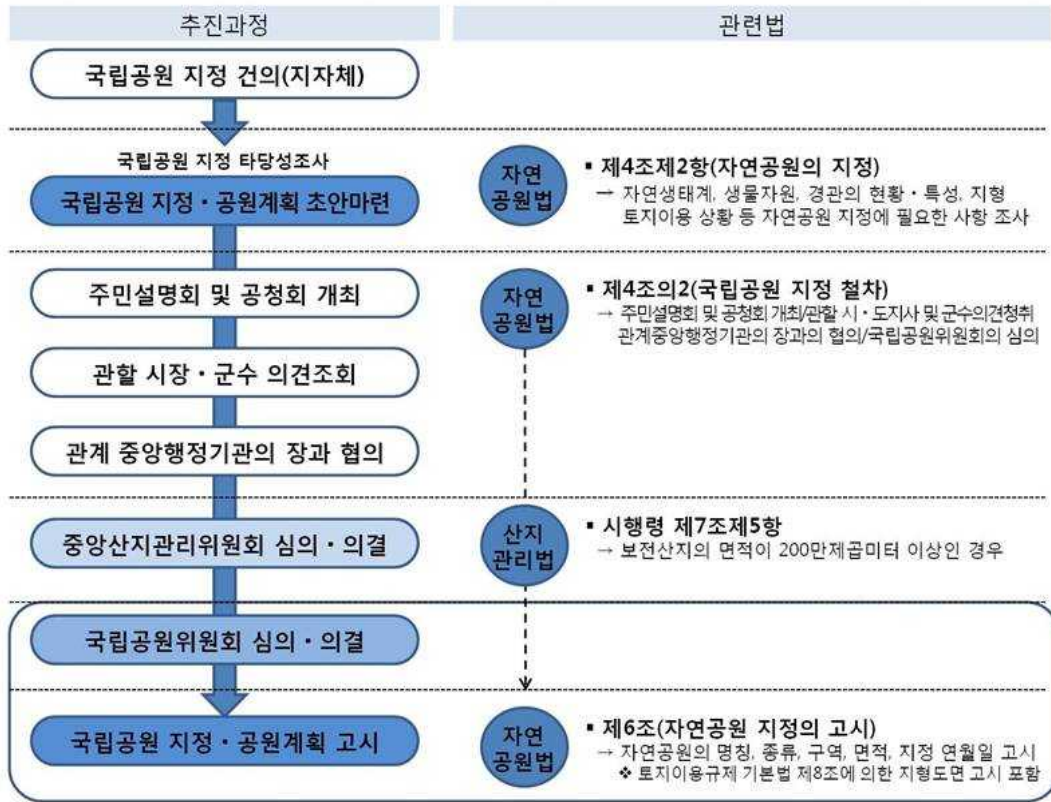
2. 국립공원 이해와 주요 내용

2-1. 국립공원 권리 및 패러다임 변화

2-2. 국립공원 용도지구

2-3. 공원계획 및 공원시설

2-4. 국립공원 지정 절차



18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 자연과 공존·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실현

- 섬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제주다운 생태계·자연경관·인문경관의 체계적 보존
- 자연환경의 양적·질적 가치 제고 및 그 가치를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활용
- 자연훼손으로 얻는 이익 지양, 자연의 가치를 활용한 발전체계 구축
- 도민이 지켜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자원의 관리 체계 강화
- 자연환경의 훼손 및 총량 훼손 방지

◆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자연환경의 가치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생태계, 자연문화경관, 지형·지질, 이용편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 핵심 자원간 생태축 구축, 생태계 용량 확대, 생물다양성 증진 실현

◆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존 및 질적 관리체계 구축

- 제주도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자연환경의 사적 이용 및 사유화 방지
-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등의 가치 저하 방지

19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 지역 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 양질의 전문 일자리 창출 및 전문적인 관리 체계 구축

◆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한 자연환경의 가치 공유

- 미래지향적 관리체계 구축 :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실현
- 보존지역 사유지에 대한 매입·보상체계 개선

◆ 이용자·수혜자 부담원칙의 제도 도입

- 자연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 진행형 공원사업으로 추진

-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국립공원 조성에 역점
- 장기적으로 자연의 가치를 활용하는 국립공원 지정요청 지역 확대

20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① 제주국립공원대상 구역 검토

용도지구	대상 구역 검토
공원자연보존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법정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 중심 : 남북 산록도로와 평화로·변영로 위쪽 중산간 ▪ 동부·서부지역 : 곳자왈, 오름군(경관관리계획),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완충지역), 천연보호구역, 곳자왈도립공원 ▪ 남부지역 : 생물권보전지역(핵심지역) ▪ 해안지역 : 해양도립공원 일부지역
공원자연환경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과 이용의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국립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자연보존지구 대상구역 사이에 있는 구역의 연결로 생태계를 연결하여, 생태용량 확대 ▪ 공원시설 입지로 지역발전,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공원마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의 가치를 활용하는 대표마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와 연결한 마을 ▪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원마을지구 지정을 신청한 마을

21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②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 기준

경계설정 기준	대상 구역 검토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 기존 법정보호지역 중심 ◆ 보전등급이 낮고, 임상이 불량한 구역 제외
생태계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라산국립공원 및 중산간 지역의 보전 강화 기존 법정보호지역간 상호 연결로 지구별 면적단위 최대화 ◆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구역 제외
해양공원과 육상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제주다운 국립공원 조성 공원계획에 따른 공원시설 입지 고려

22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②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 기준

경계설정 기준	대상 구역 검토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수용성(1차 마을리더, 2차 마을 주민)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 제한 최소화 자연환경 및 보전상태가 양호한 국·공유지 구역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지정절차 이행을 용이하게 함 ◆ 다수의 필지분할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 구역 최소화
국립공원 지정 후 공원관리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관리가 용이하도록 파편화 지양 및 일정면적 이상 확보 필지단위로 경계 설정, 단일 필지의 분할 지양
개발사업 부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사업자에 의해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부지는 대상 구역에서 제외
주민의 수용성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장조합 등의 제외 요구지역(마을목장 등) 비포함 마을지구 지정시 지역주민의 동의 후, 신청한 마을 지정 예정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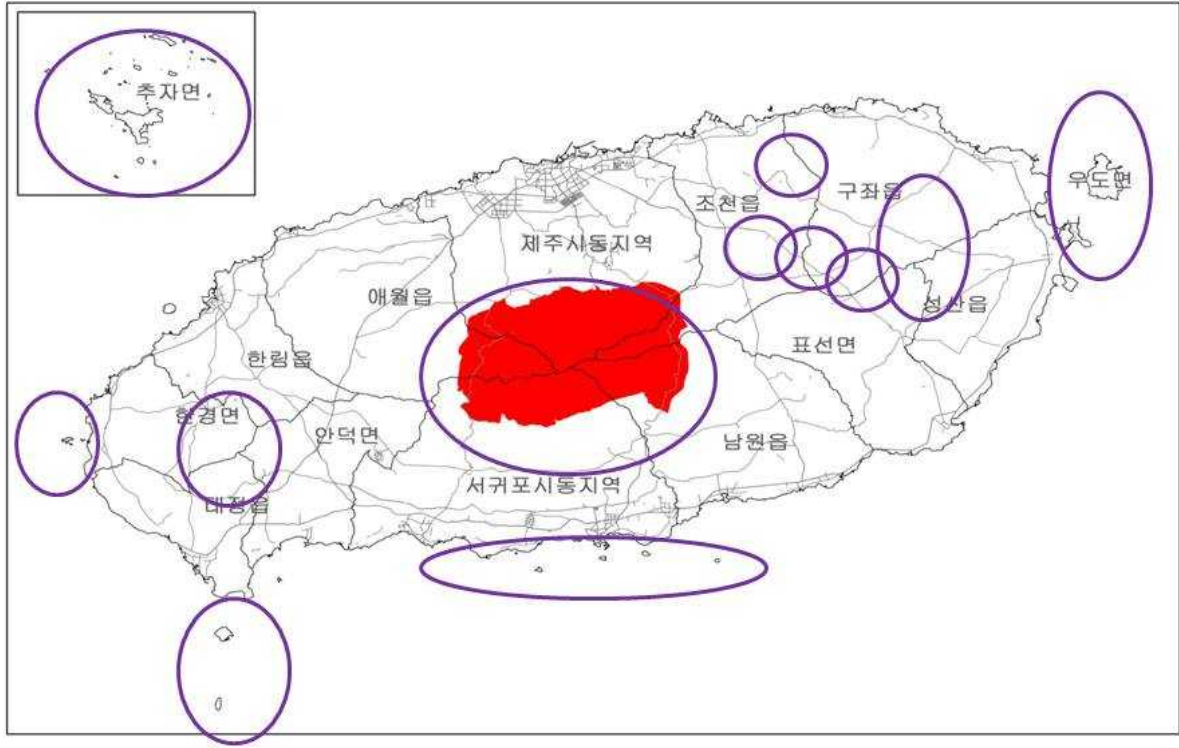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③ 제주국립공원 대상 구역(안)



24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④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의견수렴 기간(2017. 3. 14 ~ 7. 6)

◆ 의견수렴 대상 마을: 48개 마을(주로 이장 또는 마을회장, 개발위원, 목장조합관련자)

대상 지역	해당 마을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 어름2리, 봉성리, 상가리, 유수암리(2), 장천리, 소길리, 고성1리, 고성2리, 공령2리
	한림읍 금악리
	한경면 고산1리, 저지리, 청수리, 산양리, 용수리
	구좌읍 한동리, 덕천리, 평대리, 송당리, 상도리, 새화리
	조천면 외흘리, 선흘1리, 선흘2리, 대흘1리, 대흘2리, 외산리, 교래리
	동지역 봉개동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구억리
	남원읍 수망리, 하례1리, 하례2리, 신례1리
	성산읍
	안덕면 동광리, 서광동리, 상창리, 상천리, 감산리, 공평리, 서광서리, 덕수리
	표선면 가시리
	동지역 하효동, 서호동, 중문동

25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④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설명 및 토론전경



26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④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설명 자료

자료	주요 내용
<p>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국립공원 (영상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자연 : 4대 국제보호지역, 세계자연보전총회 ▪ 자연환경의 훼손 가중 ▪ 미래제주의 선택 : 청정과 공존 ▪ 국립공원이란 ▪ 국립공원 지원정책 및 지정효과? ▪ 국립공원 용도지구제 ▪ 일본 하코네국립공원 사례 ▪ 제주국립공원 구상 ▪ 제주국립공원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 더 큰 제주를 위한 선택

27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④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설명 자료

자료	주요 내용
제주국립공원 지정 바로 알기 (소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이란? (가칭)제주국립공원 지정 의미는? 국립공원 지정효과는? 지역주민 지원 정책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는? 현행 법정 보호지역과 국립공원 용도지구 행위제한 비교 국립공원 관련 Q&A

28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④ 지역주민 의견 수렴

◆ 마을방문 의견수렴 결과

의견	주요 내용
찬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국립공원 지정이 제주의 환경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보전할 곳은 보전하되, 보전의 가치를 잘 활용해야 함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제주의 청정 이미지 퇴색으로 경쟁력 상실 우려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 개발을 못하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도 무방
유보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개발위원회 및 목장조합회의, 마을총회 등을 거쳐 결정할 사안
반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산간의 경우 해발 400m 이상, 평화·변영로와 산록도로 안쪽만 포함 국립공원 지정시 한라산국립공원처럼 보전중심 공원으로 행위제한 우려 국립공원 지정시 지가 하락 우려 향후 목장 등의 개발(대매)계획과 상충 현 법정 보호지역이 해체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29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 제주국립공원 지정으로 동북아 환경중심도시 기반 구축

- 전 국민의 자연보전 의식 함양 및 생태·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
- 수요자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자연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통합적·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 현재보다 나은 자연환경 보전·관리·이용 시스템 구축
- 현재의 법정보호지역보다 자연환경의 가치 제고(현재와 미래)
- 생태계·자연환경·인문환경 가치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생태축 연결, 생태용량 확대로 자연생태가치 확대
- 정기적인 자연환경조사, 자원모니터링 실시, 과학적인 관리체제 마련

◆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

-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활용 등 경제적 가치 활용기반 마련
- 공원계획 및 공원 보전·관리계획에 주민참여가 가능한 공원시설 입지
- 제주의 자연을 대표하는 마을 육성 :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자연의 가치 활용
- 자연환경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 지역특성에 맞는 국립공원 마을지구 및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 국립공원 전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자긍심을 갖는 전문직 일자리 창출

30

3.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및 경계설정 기준

3-1. 제주국립공원 추진 방향

3-2.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

3-3. 제주국립공원 추진관련 고려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 실현

-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국립공원 전문인력 채용
- 공원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제고

◆ 고품질 및 휴양서비스 제공으로 고품격 생태체험관광 기반 마련

- 자연친화적 탐방관리시스템 구축 및 생태탐방활성화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탐방인프라 확충, 생태복지 제공(무장애 탐방시설, 증강현실체험)

◆ 보전지역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국립공원 구역내 토지소유자 행위제한 최소화
- 국립공원내 사유토지에 대한 매수 계획 이행
- 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 보상제도(PES) 도입으로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

◆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국립공원 조성

- 지역사회 중심 파트너십 구축으로 갈등관리 최소화
- 국립공원 지정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제주특별자치도)
-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 주민의견 수렴(환경부)
- 공원계획 및 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 (가칭)제주국립공원 명칭 공모

31

4.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 일정

4.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 일정

- ◆ 제주국립공원 1차 경계 설정 : 8월말

- ◆ 경계 설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9~10월 중순
 - 지역별(마을별) 주민설명회 개최

- ◆ 제주국립공원 제안서 제출 : 10월말 이후

주제 2

지역사회의 현명한 자원이용과
지역관광 활성화

강미희 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지역사회의 현명한 자원이용과 지역관광 활성화

서울대학교

강미희

지역관광

• 지역관광이란?

• 도시관광(Urban tourism)

- travel or vacationing in revitalized inner-city and other urban areas (<http://www.dictionary.com/browse/urban-tourism>)
- A term describing multiple tourist activities in which city is main destination and place of interest. (https://ceopedia.org/index.php/Urban_tourism)

• 지역관광(local tourism): 주요 목적지이자 관심의 대상인 비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광객 활동?

- 도시와 비도시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 Rural tourism과 같은 맥락에서 국가별 지역별 전원지역의 구분요소가 서로 다를 수 있음

• 지역사회란?



• The Mountain Institute (2000)

“Community-based tourism is tourism that **consults, involves and benefits** a local community,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rural villag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ndigenous peoples.”



소유권? 편익?

- Responsible Ecological Social Tour (1997)

“Tourism that takes environmental, social and cultural sustainability into account. It is **managed and owned by the community**, for the community, with the purpose of enabling visitors to increase their awareness and learn about the community and local way of life.”

- WWF(2001)

“CBT is a visitor–host interaction that has meaningful participation by both, and **generates economic and conservation benefits** for local communities and environments.”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관건

- Hamzah and Khalifah(2009)

- Analysis of CBT projects in 10 APEC member economies
- **Economic sustainability is one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 Most CBT projects set up to conserve nature and preserve cultures become stagnant if their commercial viability is not addressed.

- Sofield(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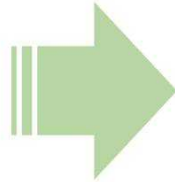
- The benefits of CBT projects should not be confined only to their locality, but should be spread throughout the entire supply chain.
- Setting up of companies to operate **the entire tourism supply chain**.

- Goodwin and Santili(2009)

“Tourism **owned and/or managed by communities** and intended to deliver wider community benefit, **benefiting a wider group** than those employed in the initiative.”

지역관광과 지역사회

- 지역관광: 대도시의 전형적인 도시환경이 아닌 상대적으로 소도시 또는 전원지역 성격을 가진 곳에서 자연과 문화를 즐기는 관광
- 지역사회: 마을 혹은 해당 지역관광이 이루어지는 곳의 공동체



제주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제주도민과 제주환경에 편익이 되는 관광

세계유산 지정, 관광활성화, 지역편익

“세계유산의 이름이 지역편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부정적 사례

- 환경훼손
- 사회문화적 훼손
- 경제적 편익 유출

장소에 상관없이 관광의 부정적 영향은 발생.
민감한 자연자원을 가진 곳일수록, 고유의 문화가 있는
곳일수록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영향은 더 클 수 있음



Venice



인구 5만
관광객 연 2천 5백만 명

'위기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오를 수도...

Source: (left) <http://blogs.elpais.com/paco-nadal/2013/08/index.html>
(right) <http://www.alamy.com/stock-photo/crowded-for-venice-carnival.html>

Beijing – Forbidden City



Source: <http://uneventisner.com/ten-survival-tips-for-travelin-china/>

Paris, Louvre Museum



Source: <https://everythingisfiction.org/2015/09/29/close-encounters/>

세계유산과 관광 관리의 좋은 사례

- 중국 주자이거우
 - 지방정부 주도
 - 주민참여 제한적
 - 그러나 주민편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과 체계적 관리
- 일본 구마노고도
 - 지방정부 주도
 - 민간협력
 - 주민참여 확대
 - 국내관광지에서 국제관광지로의 변화를 통한 경제적 편익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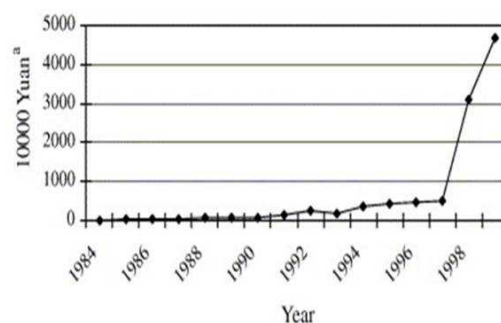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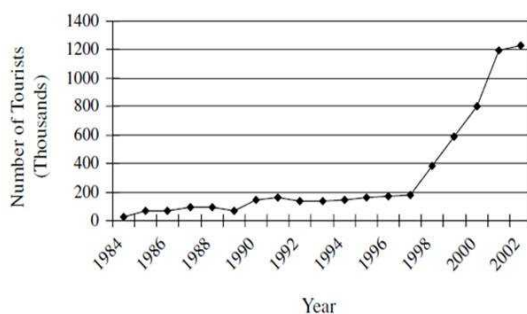
정부 주도 지역활성화: 중국 주자이거우

- Jiuzhaigou, 九寨沟(구채구) 국립공원,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국가지질공원, 국가관광매력지
 - 1978년 자연보전지(Nature reserve) 지정
 - 1982년 국립공원 지정
 - 1992년 세계자연유산 지정
 - 1997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6개의 자연마을
 - 1980년 이전, 대부분 주민 농업과 수렵에 종사. 1979년까지 대규모 벌채. 이로 인해 야생동물 수 급격히 감소
 - 농업은 급경사지에서 이루어져 토양과 물의 급격한 감소 유발
- 1981년 관광 시작, 1984년 공식적으로 관광 개방, 1986년 본격 개발 시작, 1997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점으로 관광산업 크게 성장
- 인구당 연간 소득은 1978년 기준 195 Yuan (한화 약 40,000원),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급격한 소득 증대 경험

- 1978년과 1999년 연소득 증대를 비교했을 때 477% 증대



^a (1 US\$ = 5.3 Yuan in 1980s; 1USD = 8.3 Yuan in 1990s)

출처: Wenjun Lee. 2006. Community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1): 132-143

- 1997년 농민 대부분이 농업포기, 방치된 농경지에 조림으로 자연경관을 갖도록 복원 활동 전개
- 원격탐사자료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식생상황을 비교한 결과, 식생피복지역은 6% 증대한 반면 황무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황무지
12% 감소



자연지역
6% 증대



수용력 기반 객실 수 통제

- Jiuzhaigou 관리당국
 - 실제 관광수요 기반, 주변 관광숙박시설의 침대수 최대 45개로 한정
 - 일반가정의 관리능력부족 문제 해결 위해 중국관리당국 통해 예약 및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티벳인 마을, Shuzheng Village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Jiuzhaig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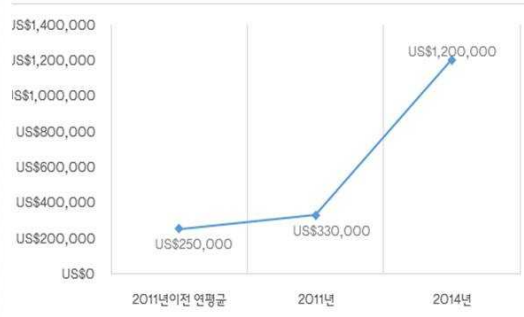
- 주민 우선 고용 정책: 빈곤정도, 관광사업 운영 힘든 정도
 - 쓰레기수거 및 청소요원 고용. 주요 관광지에서 상대적으로 먼거리 거주자에게 우선권 부여
 - 전체 관리자의 1/3이 지역출신으로, 지역출신 우선 고용 정책에 기반함
- 중국의 정치적 특성 하에서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직접적 참여는 불가능
 - Green Bus Company에 기존 400개의 운송버스 소유주민들을 주주로 참여시킴, 2000년 기준 약 90%의 주주가 지역주민
- 기존 버스의 소음과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천연가스버스로 모두 대체하여 이미 90년대 후반에 대상지 내 모든 셔틀버스는 천연가스버스
- 산림보호 위해 부과되는 임장료 수입을 매월 각 가정에 일정액(2000년 기준, 월 450 Yuan) 지급하여 관광소득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체계 구축
- 현재 GSTC의 지속가능관광 관련 훈련프로그램에서도 Jiuzhaigou의 여러 사례는 예시로 활용되는데, 주요호텔 등의 시설물도 문화적 특성을 살려서 건축, 관리되는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음

정부 주도 민간협력: 일본 구마노 고도

- 일본 다나베시 구마노 고도(Kumano Kodō, 熊野古道)
- 오지 산림지역 특성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례
 - 철저한 관광시장 분석과 온라인 오프라인 접근성 개선
 - 지역 관광상품/서비스의 품질 개선
 - 지역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통합관리시스템
 -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체계



“행복한 주민이 행복한 관광객을 만든다”





벤치마킹 사례의 시사점

- 우수한 자원만으로 성공적인 생태관광 상품을 보장 못함
- 보전은 기본, 주민 참여 및 경제적 편익창출을 동일하게 고려하면서 비전과 전략 수립 필요
-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이한 전략 수립
- 활동 조직과 인력 확보 (예산과 정책적 지원)
- 공공기관 역할: 민간사업자의 상품 품질 점검 및 향상 지원, 지속가능 관광체계(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수용태세 마련)

제주는?

- 마을기반 관광의 모범사례를 제시
 - 생태관광지역, 람사르습지도시 등의 추진과 연계
- 모범사례 마을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제주시 조천읍 선을1리

마을이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관광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례리의
공동체 활성화,
관광으로
세대를 엮다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의 성공 열쇠

**지역사회 내 가치와
개발방향 공유**

정책적 지원

행복한 주민,
행복한 관광객,
지속가능한 관광



NATO : NO ACTION Talking Only!
NAPO : NO ACTION Plan Only!



주제발표 및 토론 전문

제주국립공원 지정 사업을 제주도가 추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제주도가 탄소세, 관광세, 입도세,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이야기 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는 폐기물 발생량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되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환경보전기금을 위한 TF팀을 가동을 했는데 헌법소헌 상의 문제로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4대 국제 보호지역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의 보존관리 역량도 세계적인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의 2위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46만대 가량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처럼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연자원들을 보면 탐방객 중심 관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역주민이나 마을발전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연환경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 관리는 국립공원 관리 기준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탐방객, 단순한 경관보존 형식으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계, 생물종 다양성 등 종합적 관리 체계도 굉장히 미흡하고 제주의 가치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못하는 한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법률상의 문제로 지금과 같은 체계로는 오름은 보존하고 있지만 오름 안의 사유지는 전혀 보상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외의 지역은 모니터링만 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유원지 중심으로 건교부가 주관해서 1991년 까지 해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22개의 국립공원 중 20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정이 거의 안 이루어지다가 태백산과 무등산만 지정되었지만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그런 맥락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국립공원이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이고 나머지 21개의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정책과 관련된 것들도 생태계 보전에서 사회 경제적 가치도 고려하고 소극적 보호 규제에서 적극적 복원 복구 개념도 도입되고 지역 주민을 고려하고 중앙정부, 환경부의 주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기반으로 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예산 측면도 다양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존 기여금을 통한 국립공원 관리 방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

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지하수보전지구라든지 생태계 1, 2등급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이미 국립공원 보전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 국립공원 지역을 할 때 보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구로 정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기능을 갖고 있는 게 공원자연환경지구입니다. 여기서는 1차 산업도 가능합니다. 목장, 임산물 채취, 표고버섯 재배 등



이 가능합니다. 현행 법정 보호지역으로 상대보전지역이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려면 국토계획법 상에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자연보호법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마을지구는 국립공원과 인접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의 자연환경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마을을 한 두 개 정도는 정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원별 보전 관리계획 같은 것도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립공원 하면서 이 시설을 다 넣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공원 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에는 관리사무소, 도서관, 마을회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안전시설은 탐방객 안전이라든지 지역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휴양 및 편의시설을 보면 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 체육시설도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하꼬네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하꼬네 국립공원에도 8개 골프장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것이고 최근에 일본도 골프장은 국립공원에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해양자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해양레저시설을 공공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물원, 동물원, 공연장 등 문화시설 하고 있고 최근에는 풀오피션 캠핑장 같은 것도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교통운수 시설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탐방로에 진입하는 도로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섬 지역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내에 공항까지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상업시설도 기념품판매점, 약국, 미용업소 등 국립공원 내에 있을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다만, 공원 계획에 의해 시설들이 사전에 계획을 받고 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숙박시설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숙박시설을 규정해서 전체적인 총량을 계획해야 하면 되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지정절차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지방자체가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울릉도와 독도 같은 경우에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국립공원지정이 무산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관건이 되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습니다. 한라산 주변에는 산림청 소유 부지가 70% 이상 됩니다. 산림청에서 작년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제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도립공원을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관리권을 환경부에 줄 수 없다고 반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제주도국립공원 구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주도만 추진할 때 보다는 중앙관계부처 협의 과정이 조금은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름이나 보호지역이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파편화되고 고립화되고 단절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연결 가능한 범주를 연결하고 장래 그 지구별 상태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지속가능한 제주를 실행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생태계의 다양한 범주를 함께 고려해서 관리하는 패러다임을 갖도록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저는 이용자 수혜자 부담원칙도 해서 국립공원 내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생태계 보상 체계가 마련되면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12개 지구를 생각하고 있는 데 주민수렴하는 과정에서 50%만 되면 먼저 국립공원 지정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진행형 사업으로 가는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지정할 때는 한라산 쪽에 산록도로가 있는데 이 윗부분은 할 만한 여건이 됩니다. 생태계 등급도 높고 평화로 변영로 중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가게 되면 이들 면적만 하게 되도 제주국립공원 면적만큼 됩니다. 그리고 동부와 서부에 있는 오름, 꽃자왈 그리고 생물권 보존 지역, 해양도립공원 5개 지구를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이러한 법정 자연보존지구를 연결하기 위해서 편입이 필요한 토지들을 환경지구로 하려고 있습니다. 공원마을지구는 인접한 마을들이 국립공원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싶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경계설정 원칙은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 생태계 연결 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고 있고 지정 후 관리의 용의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이 법적으로 진행 중인 곳은 어쩔 수 없이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마을목장이 있는데 특수하게 다른 용도로 마을 목장도 포함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제외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외요건을 고려해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경계구역은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오픈하는 것은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원래 우도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은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있을 때 두 개로 분리되었던 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형태입니다. 차귀도, 수월봉은 원래 없던 것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해양도립공원은 과거에 육상부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성산일출쪽에는 지미봉이라든지 철새도래지를 포함해서 육상의 지역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꿈은 세월이 지나서 분절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연결할 방안만 강구하면 제주국립공원은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월달까지 48개 마을을 다니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은 여러 분들이 알고 있는 범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국립공원 지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동북아환경중심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탄탄하게 하는 역할, 자연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통합적,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면 사실 제주 국립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런 요건 때문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육지부의 대부분 국립공원은 산악 중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처럼 마을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원 및 도시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제주에 방문하는 사람이 곧 국립공원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된다면 고품격 생태관광 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구축 할 수 있을 것 같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주민들이 가치를 다시 얻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일정보다는 현재 60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직접 찾아가서 동의를 구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주관광에,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에도 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제] 강미희(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 교수)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지역관광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역관광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찾아보았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보아도 지역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정의는 없었습니다. 지역관광을 흔히 쓸 때 도시 관광에 반해서 쓰기 때문에 도시 관광에 대한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도로 발달된 도시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관광을 도시 관광이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관광은 그와 반대인 도시가 아닌 지역인가?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만 해도 도시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흔히 지역관광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지역사회 기반관광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사회 기반관광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 및 단체들이 정의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를 살펴보면, 지역 주민과 상의하고 참여시키고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관광이라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정의를 보면 지역 사회와 관리하고 소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중앙단체에서 지원을 받거나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개발을 했는데 이를 지역 소유라고 봐야 하는가, 소유권이 없으면 정부 또는 단체에서 위탁을 줬을 수도 있는데 지역기반 관광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야생생물기금에서는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편익을 주면서도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지역기반 관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연구결과 지역기반 관광이라고 말하고 성공여부를 가릴 때에는 반드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있어야하며, 이 경제적 지속성은 소유와 꼭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학자도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며 지속가능성이 넓은 의미의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관광 공급 체인에 들어가는 산업체들이 편익을 얻어야지 지역기반 관광이라 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포함한 것을 보면 지역관광이라는 것은 지역 공동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혹은 소유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관광이면서 단지 그 마을이나 공동체 뿐 아니라 넓고 관련된 단체나 마을이나 산업체들도 편익을 받는 것이 결국 지역기반 관광이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관광이라면 오늘 우리가 제주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역관광은 대도시와 같은 전형적인 도시 환경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소도시 혹은 전원적인 성격을 가진 곳에서 이뤄지는 관광을 지역관광이라 할 수 있겠다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는 지역관광이 이뤄지는 곳에 살고 있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제주도에서 지역관광 성공을 이야기 할 때 하나의 마을이 아니라 마을을 중심으로 한 넓은 의미의 파급효과, 환경보존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같이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홍보를 하지요. 세계유산이라는 것이 가장 큰 타이틀인데요,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주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반드시 가져옵니다. 제가 20년 전에 논문을 읽었는데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훼손을 가지고 온다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세계유산이라는 큰 이름을 붙이는 순간 관광객은 몰려들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훼손을 가져옵니다.

부정적인 사례는 흔히 많이 알지만, 가장 먼저 환경훼손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인 편익 유출도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니, 렌트카의 이용을 많이 하지만 렌트카의 상당부분이 서울이나 외부에서 소유하고 있고 제주도에 소유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관광객이 와서 제주도에서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돈은 외부로 나가버리고 말 그대로 제주도에서 외부 투자가 많은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가치를 보고 투자가 이뤄지고 투자된 돈의 편익은 외부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행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베니스에는 관광객 물려가라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의 문제뿐 아니라 산호초의 훼손으로 크루즈가 못 들어오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위기에 처한 유산 목록에 올려야 되는데에 대해 올 여름에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6만 명의 관광객이 인구 전체의 5만의 베니스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뒤늦게 베니스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신규 호텔도 못 짓게 하고 중앙광장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에이비엔비 등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금성. 우리가 많이 아는 만리장성도 제가 한 겨울에 가 봐도 사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겨울이 아닌 좋은 날에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모나리자 사진을 찍으면 운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비수기에 가도 사람이 많아서 그곳에서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세계유산이 분명히 사람을 많이 끌어드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저런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주자이거우 두 번째는 일본의 구마노고도입니다.

구채구 역시 밑에 타이틀을 보는 것처럼 제주도와 비슷합니다. 구채구도 국립공원,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이자 국가지질공원이고 국가관광매력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에 크게 6개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원래는 농수렵에 대부분 종사를 했었는데 땅이 그렇게 좋지 않고 급경사지에 농사를 지어서 토양 황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관광이 8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이 90년대에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광을 통해 주변 지역사회에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아서 78년부터 99년까지의 관광객 숫자와 지역의 소득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과 관광객만 늘어났느냐? 그렇지만은 않고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며 관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 관리당국의 조림으로 황폐지가 줄어들고 자연지역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발표 중에 숙박시설을 넣더라도 숫자 제한이나 총량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곳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수요를 산정한 뒤 숙박시설의 침대수를 45개로 제한했습니다. 최근에 찾아보니 숙박을 여러 호텔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이트가 없었다. 일반 가정들이 내국인을 받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되지 않고 더더욱 외국인 관광객은 큰 호텔이 아니면 받기 힘들었습니다. 관리당국에서 예약과 결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미 90년 후반에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민우선고용정책이 있는 데요 우리도 주민들한테 쓰레기 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게 시킵니다. 주자 이거우는 관리자도 1/3이 지역출신이고요, 언어 해설사가 90년대 후반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 모두 지역출신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청소를 할 때도 관광지에 떨어져있는 먼 곳에 사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주민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이 아닌 천연가스버스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버스를 소유한 주민들을 주주로 참여시켰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했을 때 90%의 주주가 지역주민인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90년대에 천연가스 버스로 다 바꿨고 환경을 먼저 관리하고 지역과 편익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장료 수입은 가구수로 나눠 주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전통적인 것을 잘 지키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관광 기준과 관련해서 사례를 들 때 구채구의 호텔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구마노고도 사례입니다. 다나베시가 가장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곳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자연유산이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데 지역에 돈이 안 되고 민박집은 있는데 민박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숙박을 굳이 안하는 경우, 정보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 시설이 낡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별로 찾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모습이 구마노고도의 탐방로인데요 아주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판을 새로 정비하고 일본어와 영어를 기본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일본에는 영어표기가 없는 곳이 많아 외국인 관광객이 찾지 못하는 것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것은 외국인을 채용해서 직접 외국인을 공략하는 전략을 개발을 했구요, 일본팀에서는 일본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는 행복한 주민이 행복한 관광객을 만든다. 2011년의 전체 소득은 25만 달러인데 2014년에는 12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많은 금액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얻은 소득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의사결정단계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를 대상으로 이 지역을 마케팅하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할머니께서 주민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수한 자원이 있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존은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어떤 정책을 쓰는지 지역 관광이 성공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에만 초점을 맞춰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의 마케팅 전략은 달라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규명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민간사업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상품품질의 관리가 민간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제주는 어떤가? 제주 전체로는 아주 훌륭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제주도가 여러 서비스가 많습니다.

제주도는 훌륭한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중심의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 첫 번째 하례 1리, 2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효돈촌을 중심으로 주로 암벽을 타고 건너가는 트래킹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3년 차이기 때문에 소득은 아직 미비하지만, 마을 회관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가 한가할 때가 없습니다. 거기는 가구당 소득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활기, 약해져가는 공동체가 강해지고 젊은이들, 부녀회 등 신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돈 보다 공동체 회복인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국립공원 해지보다는 지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보존된 경우에 살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선홍 1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생태관광으로 지정된 지 4년차로 들어가고 람사르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했었는데요, 이장님이 바뀌면서 방향이 달라질까 내외부에서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이장님이 하셨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고 옆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 마을에 해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을 생각하고, 제주도를 생각하는 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자체가 지역에 준 변화는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 등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성공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말은 많이 하고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이것들이 실천 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관광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모두가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역할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으면 성공적인 지역관광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토론] 김남조(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확장하는 측면에서 찬성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지표를 보면 자연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141개국 중에 자연자원의 낮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1인당 면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넓지 않아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주도가 이번에 한라산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주도가 과연 기존 국립공원의 틀을 찢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자치도답게 국립공원의 지정 또는 관리 기준을 보더라도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주도만의 국립공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싶다. 강미희 박사님도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주셨지만,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가보더라도 그 안에 숙박시설이 있다. 물론 자연자원의 보존측면에서 호텔을 2층 정도로 자연경관을 위해 낮게 지어있습니다. 동부쪽으로 가면 아카디아 국립공원인데 제주도와 비슷하게 해안가를 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할 때 지역 마을을 포함해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카디아 국립공원의 경우 너무 넓어서 국립공원 영역이 어딘지 모르겠고 이게 국립공원인지 마을인지 경계도 모호했다. 우리가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은 자연환경보존에 측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인위적인 측면을 배제했는데 지역가능성이 자연환경 보존만이 그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지역사회가 같이 공존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만의 특성을 가지는 제주도 고유의 모델을 개발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 굳이 육지의 사례를 따를 필요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넓지만 구조로 가게 되면 그리 넓은 면적은 아니다. 제주도만의 고유의 모델을 확보, 어떤 식으로 면적 확대, 지역사회의 의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시적으로 봐서 제주도만의 국립공원 모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굳이 기존의 방식으로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갈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실 1960년도에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먹고 살기 힘들 때라 국가에서 하는 국립공원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마을을 억지로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있었다. 사유지에 대한 권리로 넘어오는 시대로 넘어와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문제로 되었다. 그러다보니 80-90년대에서는 국립공원에서 배척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국립공원의 사유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서 서울시가 공원지정을 많이 하고 공원을 그대로 방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산권 행사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서울시 보고 땅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원해제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원을 지정할 때 지역주민과 소통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 문제와 부딪히면 공원지정은 암초로 남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과연 공원이 지정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지역주민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제공은 갈등을 해소하

는 방법 그 다음 지역사회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로 무주관광레저도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역주민한테 장점만 말했고 이것을 추진 할 때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 공원 지정해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립공원지정을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림과 동시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최근에 나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다. 제주도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안고 넘어가는 시기인데, 즉 제주도가 투어리즘포비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85%를 차지할 때 제주도는 투어리즘포비아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다. 제주도는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언제 또 중국인들이 오는 것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포비아가 나타날 듯 말 듯 한 현상 다음으로 나타나지 않나. 초기 관광개발단계에서 사회문화적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주도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주 국립공원 지정에 포괄적으로 그런 측면의 시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토론] 황명규(북한산국립공원관리소 소장)

관광부분과 국립공원 부분은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관광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광은 개발이고 국립공원은 임실 자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관이 사유지화 될 위기에 있어서 사유지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사유지를 점유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보존에 치우친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당국의 책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존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주민들은 잘 보존된 자원을 통해서 경제적 또는 환경적인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를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주 국립공원에 대해 몇 차례 발표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도는 자연생태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언젠가 소모가 될 것입니다. 중국관광객이 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 오름이라든지 많은 자연유산들이 사실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질적인 관리가 없다. 사실상 중산간 지역 개발압력에 대해 방비를 하고 생태적으로 연결함으로 인해 제주도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에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유지가 될 것입니다. 사유지 중에서도 마을에 거주하는 부분이 침해하다. 과거에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마을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것에 겹쳐서 집단시설건립으로 지나치게 마을이 개발이 되었다. 지나치게 많은 마을이 포함이 되어서 마을 지구에 대한 규제완화가 계속 반복됨. 오히려 마을 지구가 다른 지역보다 더 개발이 되는 상황. 2010년에 많은 부분을 제외시킴. 마을들이 20호 이상 제외, 20호 이하는 정책이 용이. 아까 국립공원에서 많이 나온 말이 지역의 소득이 문제가 아니냐. 저희는 지



역 소득, 경제발전 고민 많이 한다. 제주국립공원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득은 먹고 살 만 하다는 이야길 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문제 아니고 소득보다는 지역의 전통성, 마을의 정체성, 공동체 유지가 더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명품마을 지정 관리 중 어떤 마을은 잘 형성 및 유지의 강한 의지가 짐, 우리가 명품마을을 지정하고 주민의 경제 활성화 움직임에 따른 소득 증가와 이에 대한 갈등이 드러납니다.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으로 포용적 성장 이 부분은 국립공원에 또는 그 외의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람 지역주민 삶의 질 높이고 어떻게 유지, 이런 부분에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 마을에 맡겨놨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 마을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때 포용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토론] 김남진(제주관광협회 부본부장)

제주에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것과 유의 해야 되고 과연 그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는가에 쪽에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관광협회가 관광 상품이라는 바구니에 그 동안 관광지만 넣었다. 2년 전부터 관광상품이라는 것에 농어촌을 넣어봤습니다. 문제는 관광마을의 특성을 가진 것들을 잘 다듬어 상품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기획 홍보를 하는데 수익성이 약하다. 제주시 명도암, 낙천, 남원쪽의 신흥2리, 서귀포 예레동에도 5군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단발성 관광이 아닌 장기적으로 재방객을 유치하려면 제주의 독특한 마을을 보여주고 체험 및 구입을 위해 유통비용과 홍보비용을 관광협회가 전부 부담을 하게 해봤습니다.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게 될 때 구입비용이 전부 마을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회만이 가진 공공부분에 온라인 마켓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마을에 있는 상품을 쿠팡이나 인터파크에 판매하면 수수료를 20%를 내는데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사이트에 올리면 5.5%(카드수수료, 부가세) 이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는 것은 가급적 현금을 사용해서 5.5%로도 줄여보았습니다. 마을의 버스에 팜팜버스를 명명해서 운영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용 층이 30대 주부와 자녀들. 관광객과 마을 모두 호응이 좋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자원은 좋은데 이것을 유통하는 것과 손님을 유치하는데 약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운영해봤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관광 상품이란 그릇에 농어촌을 담겠다고 하는 게 공정관광을 추구하려고 하고 지역 주민과 관계를 맺으면서 소비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자. 강 교수님도 하례리를 말씀하셨지만, 마을끼리 경쟁적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고 공동체가 돈독해지고



공동체의 활성화보다 소득창출이 되어야 유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래갑니다. 황소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도내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평가 후 인센티브를 나누는데, 지역단위의 축제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제뿐 아니라 마을의 활성화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컨설팅 했으면 좋겠다. 제주의 공원 지정을 하게 되고 대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청년회, 부녀회, 어촌계) 하도록 하고 못 하는 부분들을 비영리 체계로 할 계획이다. 중간에 이벤트 비용을 만 들어서 이벤트를 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토론]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선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는데 마을산하는 아니다. 선홀2리는 자연유산이 있는 옆 마을인데 세계자연유산이 지정되고 검은오름 탐방이 시작될 때 쯤 단체를 운영했었다. 탐방 예약제도 저희 단체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 핵심은 마을이 알려지고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여러 가지 상

업행위가 들어오고 이것은 공동체를 붕괴시킨다 할 수 있다.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수익창출로 이뤄지게 하려면 마을에 방어수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처음엔 재단이라는 형태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마을에 이장이 바뀌면 그에 따라 정책들도 바뀌는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오랫동안 교감을 하면서 많이 만나 자발적인 수준을 끌어 올려야 된다. 생태관광지원센터도 중간에 만들어져 선홍, 저지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완전하고 근로조건 또한 열악하다. 이런 부분이 안정화 및 체계화 되어야 하고 마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식수준이 올라오기 전 까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김남조 교수님께서 제주도만의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바로 곳자왓 같은 경우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면 힘들다. 국립공원의 경우 사유지의 문제가 있는데 제주도는 외지인 사유지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문제가 될 것이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의 경우도 지정에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국립공원의 지정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토론] 고선영(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 센터장)

제주관광공사에서도 생태관광 에코파티 사업을 했고 올해도 수익과 연계해서 송당상회 같은 사업을 추진했었고 마을 관광 성공의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도자 교체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문제, 별도의 운영체 문제의 발생 그리고 참여 또는 배분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을 예를 들면 초기에 주민들의 참여가 낮았으나 결국 소득이 어느정도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번진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한마을의 경우 개울 하나를 가지고 체험을 해서 소득이 되니 법인을 5개로 만들어 개울을 5개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제주도는 현재 잘 되고 있는 하례리, 선홍리를 보면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마을의 의식 있는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며 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자체 운영시스템과 내부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토론] 강미희(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 교수)

관광공사가 앞으로 하시면 좋을 것들을 몇 가지 말해보겠습니다.

관광공사는 그 동안 홍보는 너무 잘 해왔는데 앞으로는 품질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가 EU에서 만든 청정해변 인증을 우리나라 최초로 받았습니다. 제주도도 인증을 받아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즉, 제주는 관광시설물, 해변, 마을 등의 관광인증에 집중하고 품질 제고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마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도 생긴 것 자체도 훌륭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공사에서도 협회 및 NGO를 도와주면 앞으로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토론] 김태윤(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계획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며 천천히 가고 일부지역만 육성이 되더라도 일단 1차 그림은 처음에 조정되는 한이 있어도 보고서에 명시해서 오픈할 것이다. 1차 단계에서 마을주민에게 수렴된 의견은 앞으로의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사항들은 지정 운영과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만의 새로운 모델을 가진 제주국립공원이 구상될 수 있도록 제주만의 특성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좌장] 문성종(한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일본에 센카쿠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본 관광이 이를 극복하는 데에는 1년이 걸렸습니다. 사드는 1년이 넘을 것으로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투어리즘포비아가 오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수용력을 미리 준비하고 싸구려 관광 즉, 노투어피를 막기 위한 관광전략을 세웠을 때 지속가능관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두 분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현황

○ 제14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7년 8월 23일(수)
주제	지속가능한 관광과 제주의 포용적 성장
주제발표	주제 1 : 지속가능한 제주와 제주국립공원 구상 / 김태윤(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주제 2 : 지역사회와의 현명한 자원이용과 지역관광 활성화 / 강미희(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교수)
참석자 (가나다순)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김남진 제주관광협회 부본부장 문성중 한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황명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제13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7년 6월 9일(금)
주제	POST 사드, 제주관광의 나아갈 길
주제발표	주제 1 : 수요자 기반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 박정하(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실 실장) 주제 2 : 제주관광 상품 유통구조와 변화 필요성 / 김영민(한국자치경제연구원 기획정책연구실 팀장)
참석자 (가나다순)	강동우 제주동락여행사 사장 강병수 제주라다마호텔 영업전략팀 팀장 강영순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협회장 고낙천 제주신라면세점 점장 문성환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단 단장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계 계장 김남진 제주관광협회 부본부장 변동현 제이트립 대표 정승훈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민규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 중화권팀 팀장

○ 제12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7년 4월 13일(목)
주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제주의 수용력
주제발표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의 방향 및 방법 (조부연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참석자 (가나다순)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창식 제주관광학회 회장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문성중 한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신왕근 제주관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장성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정대연 제주기후변화센터 센터장 홍영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과장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현황

○ 제11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7년 2월 28일(화)	
주제	스마트 관광도시 제주,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	제주의 스마트 관광 현황과 대응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보융합담당관)	
참석자 (가나다순)	공주삼 (사)제주ICT기업협회 대표 김근형 제주대학교 관광융합소프트웨어 인력양성사업단장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계장 김남진 제주관광협회 부분부장	윤형준 제주 PASS 대표 이민석 TNDN 대표 임종호 카카오 제주사업추진협의체TF TF장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 제10차 제1회 제주면세포럼 개최

일자	2016년 12월 5일(월)	
주제	제주의 질적성장을 위한 저가관광 개선방안 모색	
주제 발표	- 거버넌스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와 면세점의 상생전략(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여행 산업과 면세산업, 쇼핑 관광 활성화(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참석자 (가나다순)	(축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오영훈 국회의원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토론자) 고낙천 (주)호텔신라신제주면세점 점장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분부장 감주남 롯데면세점제주(주) 대표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문성환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단 단장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

○ 제9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9월 28일(수)	
주제	관광에서의 위기 및 안전관리	
주제 발표	관광에서의 위기 및 안전관리 사례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참석자 (가나다순)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분부장 김동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과장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이사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현황

○ 제8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8월 26일(금)	
주제	관광객 수용태세 대응체계의 고도화, 불만족요소 관리	
주제발표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관광객 불만족 대응 사례 (최일태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대외사업본부 본부장)	
참석자 (가나다순)	고민정 제주관광공사 제주웰컴센터 관광안내소 대리 김승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 팀장 김희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안혜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오선애 제주안내 120콜센터 센터장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오흥국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왕재욱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팀 차장

○ 제7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7월 25일(월)	
주제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한 저가패키지 개선방안 모색	
주제발표	여행산업 저가구조 개선과제: 송객수수료를 중심으로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참석자 (가나다순)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분부장 김주남 롯데면세점 상무 배성환 비단국제여행사대표(한국여행업미래발전협의회) 송윤심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담당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장지명 (주)세리월드 대표 정기정 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실 아시아중동팀 팀장 진정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관광경찰담당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제6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6월 24일(금)	
주제	제주관광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주제발표	제주관광의 핵심인재 육성 방안 (장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성과관리센터 센터장)	
참석자 (가나다순)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부장 김우신 오라관광(주) 인사총무팀 팀장 김창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 실장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양인실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 대외협력이사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임유미 사우스웨스트미네소타주립대학 교수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현황

○ 제5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5월 26일(목)	
주제	관광브랜드 조명을 통한 미래전략 방향 모색	
주제 발표	관광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 (한국관광공사 마케팅지원실 브랜드마케팅팀 팀장)	
참석자 (가나다순)	김남선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산업과장 고경실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강사(전 제주도 공무원) 김진우 CJ E&M 미디어솔루션부문 사업1국 부장 문경호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 처장 박상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임재영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차장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조익준 영진경영법인 대표

○ 제4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4월 27일(수)	
주제	정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개선 대책에 따른 제주관광의 대응 방향	
주제 발표	중국 단체관광시장 개선 대책 및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전략시장과 사무관 왕기영)	
참석자 (가나다순)	김남선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산업과장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분부장 김은영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 부지부장 김지훈 JIBS 취재부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장 문성중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	서대훈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업국 부장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홍유식 (주)하나투어제주 대표이사 홍종훈 제주공룡랜드 상무

○ 제3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3월 21일(월)	
주제	제주 미래관광에 대한 대안적 논의	
주제 발표	제주의 미래 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 제주 방문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향자)	
참석자 (가나다순)	고승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국 국장 김종기 제주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위원 서용건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송규진 제주YMCA 부설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신왕근 제주관광대학교 항공서비스과 교수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소장	양정철 세계환경과섬연구소 특별연구원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이성은 제주관광공사 경영지원처 처장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 제2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2월 16일(화)	
주제	제주관광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및 안내체계 개선	
주제 발표	-관광품질 통합인증제 도입을 통한 관광발전방안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 실장 안덕수)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사례 및 제주지역 적용 방안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안내소사업팀장 김현숙)	
참석자 (가나다순)	고승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관광지업 제1분과장 권오성 한국표준협회 서비스경영센터 센터장 김남선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산업과 과장 김동훈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제주조합 정책이사 김아미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 부지부장 김재환 나사렛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종문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제주지회 지회장 김현숙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안내소사업팀장	김화경 제주국제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안덕수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 실장 오승철 제주 MBC 보도제작국장 오흥욱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 이난영 한국표준협회 서비스경영센터 책임전문위원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임재영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차장 조부연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덕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담당

○ 제1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1월 19일(화)	
주제	제주관광 질적성장 방안 모색	
주제 발표	국내·외 질적성장 지표 관리 사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계·R&D센터장 전효재)	
참석자 (가나다순)	강석창 JIBS 보도국장 고 미 제민일보 경제부 부국장 고승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국 국장 김창식 제주관광학회 학회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과장 문경호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 처장 박운정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양호석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팀장 오문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 실장 오흥욱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 처장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임성준 세계일보 사회2부 차장 임철수 한국관광공사 관광시장조사팀 팀장 임흥철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행정팀 팀장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장성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계·R&D센터 센터장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조진훈 제주컨벤션뷰로 마케팅팀 팀장

제14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결과보고서

발 행 일 : 2017년 8월

발 행 처 : 제주관광공사(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담당부서 : 연구조사센터 (TEL. 064-740-6044 Fax. 064-740-6038)

- 제주관광공사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워크숍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 대안들이 도출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Romantic Jungmun

浪漫的中文
欣赏最美的晚霞

微风吹动长发
拥抱最美的自然

心动的瞬间
送给最美的你

당신에게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붉은 노을을

황금빛 머리결을 휘날리는
햇살비람을

가슴 떨리게 눈물나는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합니다

没有任何地方
比中文更浪漫

중문보다
로맨틱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THE JEJU DUTY
FREE
济州旅游发展局免税店

济州中文观光区 乐天酒店 6楼
T. +82 64 766 9000

